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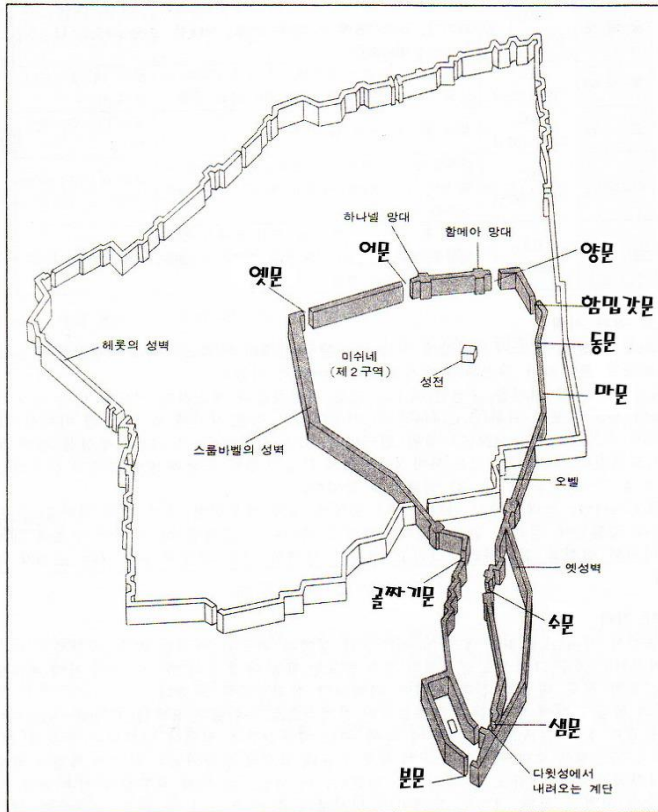
# 느헤미야 11.12 - 정착과 성벽봉헌

**정착**  
**봉헌**  
**예수그리스**

“알과와 오메가”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. 이 말은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3 번 나오는 말입니다. “나는 알과며, 오메가,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, 시작이며 끝이다”(계 22:13)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말 연초에 “송구영신예배”를 드리는 것도 그 의미에 근거해서 드립니다. 오늘 배우실 내용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,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 내용을 같이 배우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감사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

- 느헤미야 7 장에서 배우신 것 처럼,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을 채워 넣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 내용의 실제적인 배치를 11 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들이 정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(11:1-2)
  - ㄱ. 백성의 ( ) 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습니다.
  - ㄴ. 백성들은 ( )를 던져 ( /10)은 거룩한 성 ( )에 살게 되고,
  - ㄷ. ( /10)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 살게 되었습니다.
  - ㄹ. ( )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( )하는 사람은 백성이 ( )을 빌어 주었습니다.

2. 아래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.



(예루살렘 성벽)

ㄱ. 성벽은 어떤 문에서 시작하고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왼쪽 그림에 표시해 보세요.

ㄴ. 두 찬양단은 각 각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려 보세요(12:30, 37-39 참조)

ㄷ. 두 찬양단이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지만, 함께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문의 이름은 무엇이며, 그 문으로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?

( )

[Note 1]  
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허물어진 성벽을 순찰하기 위해서 밤에 수행원과 같이 순찰했습니다. 순찰을 시작한 문이 “골짜기문”이었습니다. 그리고 용샘, 거름문(분문) 그리고 샘문에 이르렀을 때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찬양대를 거름문(분문)에서 시작해서 출발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(느 2:12-15, 느 12:31)

[Note 2]  
예수님께서 “양의 문”이십니다.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, 구원을 얻고, 드나들면서 꼴을 먹습니다(요 10:9).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목자이십니다(요 10:11).

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십니다(계 21:22)

